

#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안 찾는다

### 전북자치도, 금융 심포지엄 개최... '혁신적 지역금융 전략·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의 장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제1회 NPS포럼'에 협력해 '한국증권학회·한국재무관리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혁신적 지역금융 전략과 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학계 연구진 80여 명이 모여 국민연금 및 전북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풍성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조은영 충남대학교 교수의 '대체투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다각화와 위험관리' 발제를 시작으로 △신은정 백석대학교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 사례와 시사점',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의 '비교우위 디지털 자산 사업 육성을 통한 전북의 핀테크 산업 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국현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훈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등 연금·금융분야 전문가와 심미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이 참여하여, 지역금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제1회 NPS포럼'에 협력해 '한국증권학회·한국재무관리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융 활성화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

북 특화 금융모델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이 필요

하다"며, "심포지엄에서 이뤄지는 심도 있는 논의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북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자산 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노인돌봄 서비스 질 개선 나서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전주 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우리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실천기술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며, 기능적인 자기관리 방법을 습득하여 전담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는 교육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이후에는 특화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간담회가 눈길을 끌었다.

전담사회복지사의 경험과 문제 해결방안 등의 세부적인 정보 교환과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이만호 기자

김석면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맞춤형돌봄 특화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교육과 간담회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경국)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을 위탁받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돌봄 관련 보호 대책 및 안전망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관이다. /이만호 기자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입 대학생에게 지역정착 장학금 3천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인구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타지역 출신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총 3,000만원의 지역정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정착 장학금은 진흥원에서 작년

부터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29일까지이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www.jlk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공고일(7월 5일) 기준

4년 이내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등록된 자(2020년 7월 5일 이후 등록된 자)이고, 성적조건은 총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성적 60점과 생활정도 40점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

으로 선발하며 장학금은 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홈페이지(www.jlks.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T. 276-8300)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일 임실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장마철 대비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현장점검

### 최병관 행정부지사, 수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최우선 당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5일 임실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숲속 아영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의 안전과 개장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마철 대비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수산 산림휴양시설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된 임실군 대표 산림 휴양 시설로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는

며, 주요 시설로는 자연휴양림, 숲속 아영장, 캠핑장, 탐방로, 방문자센터, 레포츠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최 부지사는 이날 심민 임실군수와 함께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 조성현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각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와 이용자의 입장의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세밀하게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시설별 안전성 확보 방안과 향후 산림휴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실시

### 전북자치도, 현장 대응요원 합동훈련 통한 역량·협력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스위트호텔서 전북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응 훈련은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며 사람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인체감염증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 교육청, 검역소 등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여 인체감염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훈련했다.

훈련의 세부내용은 AI 인체감염증

최신 지견에 대한 특강 및 대응지침에 대한 이론교육과 AI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위기 상황별 조치 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역할 수행 등 위기관리 체계 점검 및 초동 대응 역량 향상을 강화하는 모의훈련으로 구성하였다.

모의훈련은 참석자를 9개 조로 편성하여 AI 인체감염증 발생 상황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조기인지, 신속 대응, 전파·확산 방지, 예방관리 등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 모색, 개인 보호구 착용·탈의 훈련 등을 수행하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